

한라시론



김양훈  
프리랜서 작가

낯선 이름 조무빈(趙武彬), 선생의 이름씨자를 불러온 것은 올해가 신축항쟁의 두 번째 회갑일 뿐 아니라, 며칠전 삼일절 102주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선생은 항쟁을 이끈 장두 이재수의 누이, 순옥이 전하는 말을 글로 다듬고 보태어 이재수실기(李在守實記) '야월의 한라산'을 출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분이며, 또한 '기미년 격문사건'의 주동자이기도 하다.

조무빈 선생

차에 누구의 소개를 받고 순옥은 조무빈 선생 댁을 찾았다. 당시의 첫 만남을 선생은 이렇게 그렸다. '이때 順玉女使(順玉女使)란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며 양산을 외인손에 마라치고 들어왔다.' 선생을 마주한 순옥은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것이다. "하도 억울하고 울화가 나서 전라남도 도청과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 탄원서까지 제출하여 보냈습니다. 이 무식한 여자의 소견으로 난 필수록 리이사(李義士)의 실기(實記)를 우리 조선 국문으로 쓰잇으면 조를 줄로 생각합니다." 이후 선생은 순옥의 이야기를 골간으로 이재수실기 쓰기에 혼신을 다한다.

오래리라,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출간한 이재수실기를 못 학자들은 사료적 가치가 없네 없다 한다. 선생은 이러한 트집을 미리 알아채기라도 한 듯 '리제수는 제주 사람이다. 또 그 군사행동도 제주에만 국한된 사실인데 전조선에 무슨 그래게 큰 관계가 잇스리오. 이라케 생각하는 이가 잇다하면 그는 반드시 오해임이다.'라고 했다.

편집국 25시



강민성  
사회부 기자  
kms6510@halla.com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따뜻한 기운이 우리를 감싸듯 제주의 아픔을 간직한 4·3희생자 유족들에게도 봄이 찾아왔다. 2021년 마칩내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의 염원이 이뤄졌다. 4·3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총 재석 229명 가운데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된 제주 4·3특별법은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을 비롯해 명예회복조치, 위자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필요 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찾아온 봄

명에 달하는 생존 희생자 및 유족들이 배·보상 성격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일 청와대 주재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 특별법 개정은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1년 만의 법 개정이다. 지난 2000년 1월 제정됐던 현행법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 규정이 미비해 아픔을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평을 받고 있었다.

뉴스-in

도서지역 안정적 하수처리 "이제야..."

상하수도본부 긴급 설비 착수  
○...추자도에서 정화되지 않은 상당량의 오·폐수가 수년째 바다로 무단 배출돼 논란이 일자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도서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물 긴급 설비 개선에 착수. 제주도는 추자 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추자도 지역에 설치된 5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6억원을 들여 노후 기계설비 개량을 추진.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은 3일 "도서 지역의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강다혜기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등의 문구를 담은 꽃바구니를 전신해 소비 활성화를 도모. 또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사무실 꽃 생활화, 입학·졸업생 꽃 선물 등 허용 예산 범위에서 화훼 구매 활성화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 오은지기자

사설

다시 확진자 늘어 '일상의 방역' 지켜야

제주지역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달들어 지난 1일에만 신규 확진자가 5명이 발생했다. 하루에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1월 5일, 8일, 20일과 2월 17일, 24일에 이어 울퉁불퉁하다. 제주도의 회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감염자가 늘고 있다. 공무원이 잇따라 감염되면서 도내 공공정사가 일시 폐쇄되거나 운영 중단사태까지 벌어졌다.

해 건물 전체를 소독했다. 또 도의회 사무처 전 직원과 좌담수의장을 포함한 도의원 43명 등 213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다. 결국 의사 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자칫 방심하기 쉬운 시기다. 이제 막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우려가 그만큼 높아져서다. 특히 제주도내 모든 학교가 일제히 등교해 새학기에 들어갔다. 이미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만 18세 미만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접종 계획은 미정인 상황이다. 때문에 전면 등교가 이뤄지면서 감염에 대한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일상의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원희룡 지사도 "방역의 엄된 제주지역 공무원들은 모두 14명으로 늘었다. 공직사회의 잇따른 확진으로 공공기관마다 비상이 걸렸다. 도의회는 2일 예정된 제392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의사당을 일시 폐쇄

주택화재 인명피해 줄이기 모두 나서자

제주지역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의외로 많다. 날이 갈수록 위험성이 더 커진 화재의 예방대책 못지않게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제주의 경우 주택화재가 전체 화재건수중 크게 낮은 비중인데도 사망자 비율은 매우 높아 획기적인 저감대책을 필요로 한다.

소방안전본부장 최근 세운 주택화재 사망자 저감 종합대책도 주요 원인에 대한 새 '해법'을 담아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2024년까지 추진할 이번 대책의 주 내용은 주택 종류별 화재진압에 나서기 위해 '현장대응 기법'을 수립·운영하고,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주택의 효율적 화재 진압차원에서 소화약제를 발포하는 '소화탄' 개발도 담았다. 또 전담조사반 운영을 통한 노후주택 등의 위험한 전기시설 사전 제거, 원거리나 화재취약 주택밀집지역 관리 강화도 시행한다.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율2리 용암동굴계 계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립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 (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제18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원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향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열린 기술 습득, 기술인력 개발,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감공요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적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을 받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리짐.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굴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속도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